

「서울 에어쇼 '96」을 다녀와서 ...

김 윤 정/통우연



▲시범 비행 전경

세계의 최첨단 항공기가 그 모습을 드러내고 각국 곡예 비행단이 묘기를 펼치고 첨단 항공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대규모 항공우주축제인 「서울 에어쇼 '96」이 지난 10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 동안 성남 서울비행장에서 개최되었다.

대한민국 공군이 주최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가 주관한 서울 국제 에어쇼는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동북아 최초로 열리는 국제규모의 에어쇼로 국내외 관광객 약 50만 명이 관람하였고 푸른 가을 하늘아래 항공우주산업의 향연을 펼쳤다.

서울 국제 에어쇼에는 우리 나라를 비롯해 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독일, 일본 등 21개국에서 미국의 맥도넬 더글러스, 프랑스의 닷소 등 세계 유수의 항공기 제조회사 1백 34개사가 참여하

였다. 국내에서는 삼성항공, 대한항공, 대우중공업, 현대우주항공 등 항공관련 업체 79개사 등 모두 2백 13개 업체가 각종 첨단 항공기와 인공위성부품·장비 및 육군과 해군의 첨단 장비를 선보였다.

서울 에어쇼 '96은 크게 우주항공산업제품 전시회, 항공우주 심포지엄 및 항공우주테크노마트 전 그리고 시범비행과 곡예비행으로 나뉘어 열렸다. 에어쇼의 열기를 높이기 위한 각종 이벤트 행사와 문화행사도 함께 열렸다.

실외 전시장과 실내 전시장으로 나뉘는 항공우주산업제품 전시회는 국내외 첨단 항공기의 실물 전시를 통해 최근의 항공우주산업 동향과 미래 기술의 발전추세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세계 각국에서 개발한 최첨단 전투기로부터 민간항공기, 인공위성, 로켓이 전시되었으며 이와 함께 탱크, 장갑차 등 육상전투장비, 해상장비 등 첨단 방위산업제품의 실물을 볼 수 있었다. 또 공항의 항공기 관제설비, 위성통제장치는 물론 항공기를 실제로 조종하는 것과 같은 시뮬레이션도 선보였다.

항공우주제품 전시회는 옥내 전시장에 1천5백 개 부스가 설치되고 실물 항공기를 전시할 옥외 전시장으로 구성되었다.

옥외 전시장에는 한국 공군 및 육·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항공기 및 무기체계와 한국 공군의

초청으로 참가한 외국 군용 항공기, 외국 유수 항공산업체에서 제작한 군용 및 보잉 777, 에어버스 340 등 초대형 여객기와 펠콘 900EX 등 비즈니스 제트기 등 각종 민간 항공기 등이 선보였다.

옥내 전시장에는 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독일 등 20개국의 1백34개 민간항공기 및 부품 제작업체들의 각종 모형과 실물 부품이 전시되었다. 또 항공우주산업 관련 컴퓨터와 시뮬레이터 등도 등장했다.

또한 에어쇼에서 전시관으로 사용된 초대형 텐트는 우리 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선보인 것으로 눈길을 모았다. 옥내 전시관으로 사용된 이 텐트는 가로 1백10m, 세로 40m, 높이 15m에 이르는 초대형 텐트여서 일반 건물로 치면 5층 높이에 해당되며 크기는 실내 축구경기장에 버금가는 초대형 건축물이라고 한다.

서울 에어쇼 '96은 전시회뿐만 아니라 항공우주기술발전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항공우주심포지엄 및 항공우주테크노마트 전시회도 병행해 열렸다.

이번 전시회에는 2000년대 항공우주산업의 미래, 항공우주 기술의 산업적 이용, 항공기 및 인공위성 부품·소재산업의 기술교류, 항공우주산

업과 CALS 등을 주제로 기업별 사업설명회나 세미나, 기술상담이 있었다.

또 삼성항공, 대우중공업, 삼성데이터시스템, LG-EDS, 거림시스템 등 13개 기업 및 기관이 상담부스를 개설, 기술상담에 임했다.

항공우주 테크노마트전을 통해 서울 에어쇼 '96은 항공우주산업분야의 국제협력 장소로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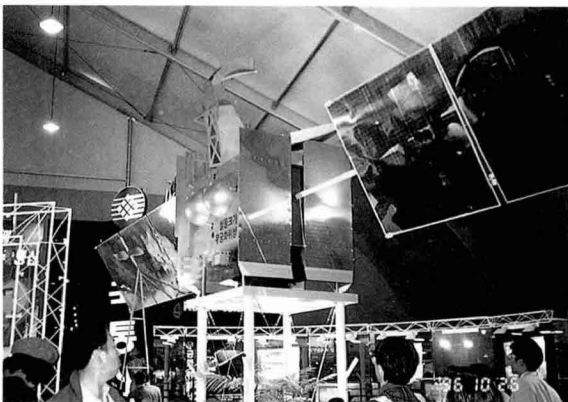
이를 통해 전 세계 시장을 상대로 국내 항공산업을 소개하는 한편 항공우주산업 관련 신제품 및 신기술에 대한 정보를 교류, 21세기를 이끌어 나갈 주도 산업으로서의 한국 항공우주산업의 면모를 세계 시장에 과시하게 되었다.

항공우주축제의 에어쇼의 하이라이트가 되었던 시범 비행 및 곡예 비행에는 한국 공군의 블랙이글 편대를 비롯해 세계 각국의 유명 전문 곡예비행팀이 참가, 가을 상공에서 멋진 묘기를 펼쳐 보여 관람객들로부터 환호성을 자아냈다.

매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씩 펼쳐진 서울 에어쇼 '96의 곡예 비행에는 한국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A-37로 구성된 블랙이글 편대가 분수형 폭발비행 등 각종 곡예비행을 관람객들에게 선보였다. 공군은 보유하고 있는 전 항공기의 공중분열을 실시, 우리 나라 공군의 우수한 기량을 국내외에 과시하였다.

이와 함께 호주의 스카이 블레이저팀이 펼치는 초대형 깃발의 공중낙하와 선회 비행, 미국 시에라에이스팀의 복엽기 편대비행 등 외국 유명 민간 전문 곡예 비행팀이 각종 공중묘기를 펼쳐 서울 에어쇼를 항공우주축제로 이끌었다.

공군은 곡예 비행과 병행해 각종 전투기의 비행을 통해 항공기 성능을 과시하고 저속·고속에서의 비행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시범 비행을 했다. 시범 비행은 군용항공기와 민간항공기로 구분해 실시되었다. 시범 비행에는 현재 미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6, 프랑스의 라파엘, 러시아



▲ 실내 전시장 전경



▲실내 전시장 전경

의 차세대 전투기인 수호이(SU)35 등이 시범 비행을 펼쳤다. 또 걸프전에서 위용을 떨친 B-2폭격기,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비행기로 유명한 F-117 등 첨단 기종이 한국상공에 그 모습을 자랑했다.

이번 서울에어쇼는 이같은 세계 최고수준의 성능을 지닌 전투기들이 대거 참여, 첨단 차세대 전투기들의 기량을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동시에 미래의 하늘을 주름잡는 차세대 전투기들의 각축장이 되었다.

서울 에어쇼 '96에서는 이와 함께 공군 군악연주회, 공수부대의 낙하시범 등 각종 이벤트를 개최, 각계 각층이 동참할 수 있는 축제의 장소를 마련했다.

이번 에어쇼의 경우 정부가 2000년 도입을 추진중인 차세대 전투기의 기종선정과 맞물려 외국 항공업체가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적극 참여했으며, 행사기간중 세계 양대 항공기 제작사인 보잉사의 초대형 항공기 개발사업에 국내 업체들이 참여의 길을 마련하는 등 성과가 적지 않았다.

특히 대한항공의 경우 보잉사와 초대형 항공기인 B747-500/600 항공기의 구조물 등 공동 개발 사업을 위한 공동개발 협력 계약을 체결했으며,

삼성항공은 노스롭 그루먼사와 B747-500/600의 동체·날개 등을 공동개발·생산키로 하고 설계단계에서부터 참여하기로 했으며 시티항공으로부터는 벨사와 공동개발중인 벨 427헬기 5대를 수주하는 등 대형 프로젝트 10여건을 포함해 각종 항공관련 계약이 이루어졌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에어쇼가 국내 항공산업이 그 동안 정비나 면허생산의 초보적인 단계에서 벗어나 각종 헬기와 중형 항공기 및 다목적 실용위성을 독자 개발할 수 있게 됐고 신형 여객기 제작프로젝트에 선진 항공기 제작사들과 공동 개발하는 단계로 올라서는 기반을 다졌으며 무엇보다도 항공우주산업의 미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크게 고무되었다.

또한 이번 에어쇼는 규모나 관람객 수에서 세계적 규모의 에어쇼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무엇보다도 항공우주산업의 미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어린 시절 푸른 하늘과 그 너머의 세계를 그리던 가슴 설레이던 동경이 단지 꿈이 아닌 현실로 좀더 구체적으로 다가오는 모습을 이번 에어쇼에서 볼 수 있었다.